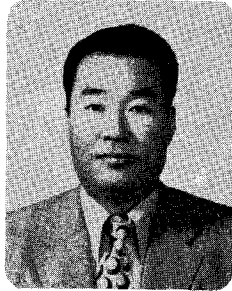


養鷄產業 安定化方案



박 영 인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장)

한국양계업은 그동안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수요증가 전망이 밝은것으로 보아 계속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양계산업이 전과 같지 않다하여, 다시 말하면 계산물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등락이 심하다하여 축산업 전체의 불안(unstable industry)을 염려하는 소리가 드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불안으로 부터 벗어나 장기적 발전을 기약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나에 대한 의견도 백출 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안정대책을 보면 그 내용이 다양 하고 추진방법론도 훌륭한 것이 많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좋은 대책이 있고 또 오랜 경험에의해 구체적 개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사도 많이 있는데 왜 양계산업은 아직도 불안한 상태 그대로인지 의심마저 없지 않다. 1975년 이래 거론된 안정대책만을 요약해도

첫째, 부화, 사육의 자발적 조절에 의한 생산조정으로 가격안정을 획책 하자는 호소(voluntary control)

둘째, 제도적 생산규제를 바탕으로 하여 산업전체의 안정적 계획발전을 기하자는 주장(compulsory control)

셋째, 이제까지와 같이 자유방임적 경쟁하의 산업체제로 자율적 안정발전을 이룩 하자는 견해(free enterprise)등으로 대별 할수 있다. 이 세가지 주장에는 물론 각각의 장단 점이 있고 어느 하나도 모든 상황에 완전무결한 대책일수는 없다.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사실은 일부 人士들이 말하는 “한국양계산업은 이제까지 자유경제체제하에서 건전하게 발전 해 왔다. 지금 무엇이 잘못인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유기업이니 어떠한 의도적 규제나 조작도 불가 하다”는 표현에 현혹 됨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산업이 불안해야 부당이득을 기대 할수 있는 특수업종의 소수업자 또는 자유경제파신론자가 한국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치 못해서 하는말이기 때문이다. 양계산업안정문제를 말 하는 어느 누구도, 자유경쟁적 양계산업을 반대 하지 않으리라. 다만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 불안요인을어

면 과도적방법, 극단적으로는 생산규제 까지라도 해서 산업전체의 장기적 안정화를 촉구하자는 염원에서일 뿐인 것이다.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10여차례의 글과 수십번의 세미나, 좌담회를 통하여 한국양계산업의 안정대책으로 제시해온 주장을 알기 쉽게 정리 한 것이다.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보다 나은 다른 견해와 절충, 보완하여 양계산업 안정을 위한 방안의 일부로 활용 되어질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I. 산업성장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들

계산물의 소비, 유통 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한국양계산업에는 산업확장으로부터 연유하는 문제들이 끊임 없이 속출 하고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생산물량확대에 의한 생산지역, 생산자수, 개별규모, 생산기술 및

경영상의 문제점, 유통량증대에 따른 기능, 경로, 물적시설, 종사자, 비용과 마아진상의 문제점, 및 소비규모확장에서 제기 되는 공급, 품질, 위생, 이용, 홍보상의 문제점 등이 있다. 이런 각 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고루 해결 되지 않는한 계산물 수급불균형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양계의 기업화는 필연적 추세다—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문제다. 특히 발전하는 경제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 하여 농가소득 부양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펴기도 한다. 전환기에 처한 한국농업도 소득증진을 위하여 구조개선, 유통개혁, 가격정책등에 골몰 하고 있다. 앞으로 다가 올 불가피한 추세, 즉 농촌인구 및 노동력 감소, 생산규모확대, 생산요소비용의 상승과 소득증대책을 감안 할때, 부분적 소

닭사육규모별 호수 및 마리수 변동비율

	합		1		999		1,000—2,999		3,000—4,000		5,000—9,000		10,000 이상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호수)	(수수)
구성비율														
1974	100	100	99.64	45	0.23	15	0.07	9	0.04	11	0.02	20		
1975	100	100	99.65	43	0.21	14	0.07	10	0.05	12	0.02	21		
1976	100	100	99.66	42	0.19	13	0.07	10	0.05	13	0.03	22		
1977	100	100	99.58	37	0.24	14	0.09	12	0.06	14	0.03	23		
1978	100	100	99.35	31	0.39	16	0.13	13	0.09	17	0.04	23		
1979	100	100	99.18	22	0.44	17	0.18	15	0.14	20	0.06	26		
증가비율														
197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75	109	111	103	97	96	97	110	112	122	115	121	107		
1976	124	140	136	130	115	119	150	149	171	169	180	160		
1977	118	160	135	123	143	145	185	185	203	198	195	169		
1978	117	217	135	129	198	205	262	259	309	301	264	221		
1979	92	219	114	96	223	233	319	315	391	379	309	263		

규모 양계의 필요성은 계속 인정, 육성해야 한다 하더라도, 양계업의 주대상은 역시 기업화 경향에 두어 발전 해 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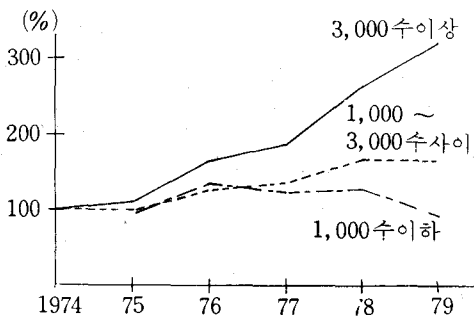
양계업의 기업화는 지난 5년간의 사육변동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다음표는 규모별, 년도 별 사육호수와 수수의 구성비율과 증가비율을 말해 주고 있다.

사육호수 변동상황을 보면 아직도 전체호수의 99% 이상이 1,000수 이하를 사육하고 있으며 1,000수 이상의 경우 5년사이에 호수로는 0.36%에서 0.82%로 밖에 늘지 않았으나 그 호수가 사육하는 수수는 55%에서 78%로 증가했다. 특히 3,000수 이상에서는 1,278호가 40% 사육하던 것이 각각 4,351호, 61% 사육으로 확대, 호수면에서는 240% 수수면에서는 206%의 증가를 보였다. 이 중에서도 5,000-10,000수규모가 호수와 수수에서 각각 291%, 279%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반면에 1,000수 이하규모는 호수, 수수 모두 거의 큰 변동이 없다.

위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시 하면 다음도표와 같다.

양계산업의 기업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대량생산에 적응하는 대량유통과 대량소비체제의 구축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 할 경우 산업 전체의 불안위

닭사육규모의 변동비율



험(risk of instability)을 더욱 크게 한다.

—공급불안과 유통불합리는

가격광란의 주범이다—

현재의 계산물 시장구조는 생산량이 곧 공급량으로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인 계산물에 있어, 공급조정장치가 없는 시장조직이란 수급의 균형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더구나 유통 과정과 기능이 물량증대에 비례하여 개선 되어 있지 않고 소량유통의 고질적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어 가공, 위생처리등의 상품화 과정, 규격화, 마아진등이 전 근대적인 까닭에 수급불균형은 물론 가격진폭도 크게 하고 있다.

이와같이 가격변화가 수시로 일어나고 또 그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은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계산물의 마아진 행태에서 찾아 볼 수 있는바, 가격상승국면에서는 遞增마아진(more than - proportional margin)이 적용되어 생산자가 가격은 소비자 가격이 오른만큼 상승하지 않으며, 가격하락국면에서는 고정마아진(fixed - margin)이 적용되어 생산자가 가격은 소비자 가격이 내린 것 보다도 더 하락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는 가격이 오르고 내릴때 마다 상대적인 손실을 보는 결과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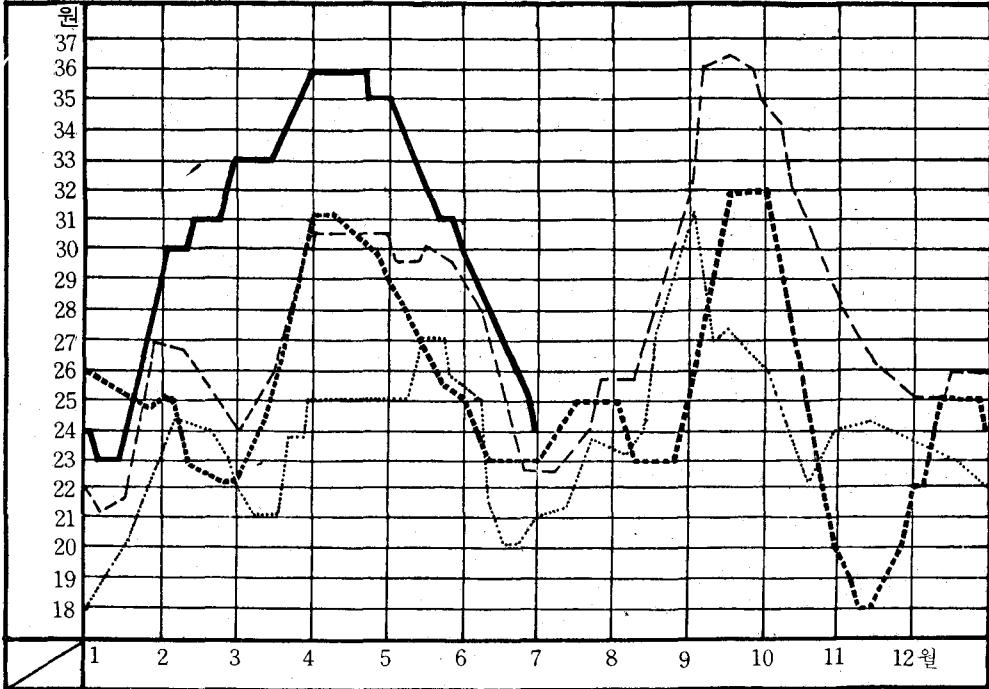
계산물 가격이 연중 어느정도 무분별 하게 변동 하는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계산물은 벌써 열등재로 전락하고 있다 —

계란과 닭고기는 양질의 단백식품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그 소비도 증가하는 것이 통례이다. 적어도 1인당 연간 계란 200개, 닭고기 10kg 정도 까지는 이 경향이 아주 강하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소비증가추세를 보면 계란이 48%, 닭고기가 71%로 같은 기간의

[대란평균가격(1개당)]

'77년
'78년 - - - - -
'79년
'80년 _____



다른 축산물 소비증가율(쇠고기 150%, 돼지고기 130%, 우유 607%)과 비교하여 크게 못미침을 볼수 있다. 그 이유가 가격상승(쇠고기 533%, 돼지고기 532%, 우유 311%인데 반해 계란은 134%, 닭고기는 70% 밖에 오르지 않았음) 요인에 있지 않고 기호대체 때문이라면 계산물은 이미 열등재(inferior goods)가 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즉 소득증가에 따라 그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국민소득과 계산물소비증가 추세에서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이 있음을 본다. 일부 漢醫와 洋醫에 의한 계산물 금기의 경향, 일반 소비자의 영양과 요리에 대한 이해부

족, 소비자에 대한 상품화 서비스의 결여등은, 소비가 예상대로 증가되지 않는 커다란 문제로 지속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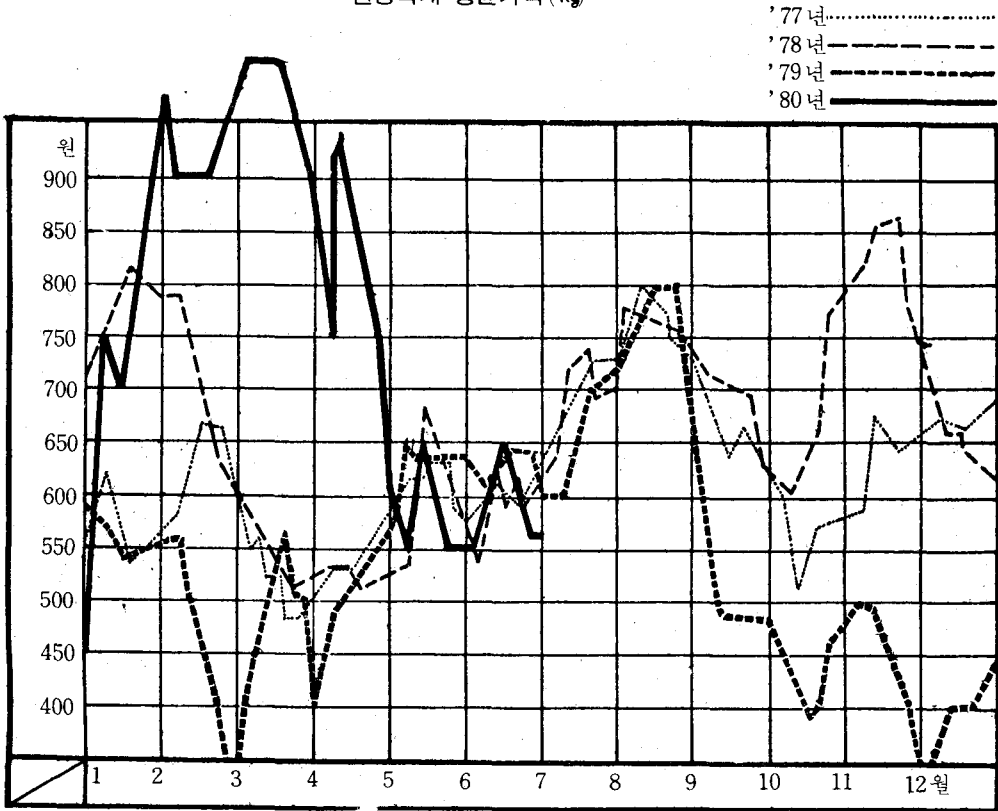
— 양계업은 투기업인가?

아니면 자선사업인가?

생산비 조차 보상 못 받아도 기업이던가? —

필자는 벌써 10년 가까이 한국의 양계업은 투기업일수 없다는 말을 거듭해오고 있다. 어느 양계인도 투기 목적으로 닭을 키우지는 않을 터인데 결과적으로는 투기업을 하고 있는것이 안타까워 산업안정위한 기본대책을 세우라는 권고의 표현으로 이 말을 사용해 오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 지금과 같이 가격기구가

전용육계 평균가격 (kg)



불안한 시장상황하에서는 양계업은 투기업 이상의 것이 아니다. 애써 생산비를 들여 열심히 생산 할 줄만 알았지 그 생산물에 대한 가격형성과정에는 속수무책, 어떤 가격이던 주는 값만 받아야 하니, 이는 생산비 매출시점과 계산물 판매시점의 모든 가격에 요행을 거는 투기(speculation)바로 그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조직적 유통기구인 외국의 선물시장투기에서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가격기대 또는 위험전가(risk transferring)라도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이곳 양계투기에서는 생산자 스스로가 100%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가

격이 좋으면 만족하여 조용해 지고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지면 아우성 쳐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양계업은 생산비도 안되는 값싼 계산물을 소비국민에게 무진장 공급해야 하는 자선사업은 더욱 아니다. 투입 및 산출, 부가가치생산 관계에서 경영수익을 극대화 해야 하는 기업인 것이다.

한국양계업은 기업이윤의 불확실성 보다도 그의 불안정성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장기로 보면 이윤이 발생하는데도 단기의 수익은 매우 유동적이며 어떤 주기성 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안은 성장하는 경제의

농산물 부문에서 흔히 경험하는 바이나 한국 양계업의 투기성은 그 정도가 지나치다.

— 풀어야 할 문제가 그대로 쌓여만
가고 있다 —

한국양계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대부분 산업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성질의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불안 요인이 농장내의 개별경영이 아닌, 농장밖의 사회경제적 문제로 부터 연유한 것이므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한데 모여야 비로소 풀릴수 있는 것들이다.

발전하는 산업상의 문제는 근본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그런 추진주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생산자단체라 할수 있는 양계협회가 그동안 농장안의 생산기술개발에는 크게 기여한것이 사실이나 농장밖의 유통, 소비 구조개선에는 적극적으로 앞장 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문의 문제는 그때그때 풀어야 되지 않은채 쌓여만 가고 있다. 문제가 문제를 낳는 고질화의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II. 안정화목표

양계산업의 안정목표는 생산자의 주도로 계물산 가격의 극한적 변동을 평준화 하여 적정선으로 안정 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그런데 가격안정은 계산물 수급안정의 결과이므로 “수급과 가격” 양면을 양계산업 안정목표도 설정 함이 타당 하다.

1. 수급안정

(1) 적정생산

수요에 적합한 생산

(2) 공급조정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계산물의 시장출하 조정

(3) 유통능률제고

유통경로, 기능, 시설, 상품화, 마아진의 능률화

(4) 소비합리화

소득, 영양, 위생, 조리, 기호에 적합한 소비촉진

2. 가격안정

(1) 생산자가격 보장

생산자소득안정과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 가격유지

(2) 유통비용적정제

능률적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

(3) 소비자 가격 안정

합리적 가격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적정 가격 유지

III. 안정대책

양계산업안정대책의 목적은 수급과 가격 불안으로 인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이익 요인을 제거하여 안정적인 생산, 공급, 유통, 소비 체제를 갖추므로써 계산물에 관여 하는 산업 모든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기 하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산업이란 본래가 동태적 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까닭에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항상 제기 되게 마련이며, 양계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여기서는 앞서 지정한 안정목표를 향해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할 기본대책을 제시 하고자 한다.

— 전체를 보고 기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안정화의 첩경이다 —

양계산업 안정대책에는 어떤 만병통치적 묘약(panacea)이 없다. 한두가지 당면 문제 해결로 안정화가 성취 되지 않는다. 다만 문제를 본질적으로 분석 파악하여 근원을 제거

하려는 종합적 努力만이 장기적인 안정화의 요체이다.

안정화를 위한 구조적 시도으로써 계열적 산업체제를 생각 하는 것은 아주 시기에 맞는 일인것 같다. 이제까지의 양계업은 각 부문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시스템이어서, 부화, 사료, 사육, 가공, 유통이 각각 분리 운영됨으로써 부문간의 이해상반과 불협화로 산업전체의 불균형 현상이 심했으나 이것을 계열적 종합경영 방식으로 바꾸면 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계열화에 대한 자세한것은 1979년 9월 9일 가금학회보(6권2호 91~102 페이지)를 참고 하기 바란다.

안정화의 접경은 전체를 한눈에 보고 순서 있게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다. 생산가공, 유통, 소비 어느 부문에 문제가 있어도 산업안정은 기대 할수 없다.

— 생산과 공급은 조정될수 있다 —

자유시장경제가 널리 채택되고 있는 미국은, 계산물의 생산을 비롯한 모든 활동이 전적으로 자유시장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자유기업제도만이 모든 나라의 경제에 만능인 것은 아니다. 국가경제가 계획적(planned economy)이거나, 사육자의 가격안정 대책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갖가지 형태의 법정 생산규제 및 공급조정을 획책하고 있다. 서구의 몇나라, 캐나다, 호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사육자의 결의에 의하여 생산과 공급을 법적으로 조절한다.

한국양계산업의 생산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異見이 있을수 있다. 이제까지만 해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음을 본다. 반대하는 측은 대부분이 사육자가 아닌 사육자를 거래 상대로 하고 있는 관련업체인것 같다. 생산규제나 계열적 생산체제가 기존 사업의 유지, 또는 확장을 제한 하지만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일것이다. 어떻든 오늘날의 산업불안

때문에 가장 두드러지게 손해 보는 측은 사육자이므로 생산조정을 생각 하는것도 역시 사육자 일수 밖에 없다.

생산자 절대다수가 불안해소책으로 생산조정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는 규제대상자의 의무적 참여(compulsory participation)를 전제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론 및 실제수행상의 타당성도 충분하다. 다만 이런 방식은 계산물 소비나 생산규모가 적정선(소비는 현재 선진국과 같은 포화수준, 생산은 기업적 경쟁수준)에 이르도록 유도 하기 위해 실시 하고, 그 이후는 자유기업 시스템으로 자율조정케 하는것이 한국경제발전 추세에도 알맞을 것이다. 생산조정 및 그에 관련된 구체적 시안의 하나는 1980년 1월호 월간양계(12권 1호, 127-133 페이지)에 실려있다.

생산을 조정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일이 아니다. 사육농가와 사육수수 증감을 규제 했을 경우 候鳥와 같은 사육자(in and outers)의 口舌과 관련업계와 소비자로부터 생산조정의 이해부족에 따른 반발을 받기 쉽다. 사실은 안정화의 목적이 양계와 계산물 관련부문 모두를 위한 것이며 양계업은 금후 필연적으로 기업화해야 하고 따라서 모든 농가는 양계업에 종사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부업으로 소규모 사육하는 농가는 생산조정 계획에서 제외 하는데도, 어떻든 규제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생산조정에대한 저항은 어쩔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1,000 수 이상 사육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8,500호, 3,000수 이상이면 4,500호이니 이들을 다룬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중에 언급할 생산자조직의 기능이 원만 하게 될 경우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생산조정에 비하면 공급조정은 훨씬 용이

하다. 생산과잉일때 그 초과분을 시장에 출하하지 않으면 된다. 보관 하거나 수출 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보관 시설과 기술, 자금, 수출선만 있으면 된다. 문제는 이런 기능을 담당할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검토한다.

— 유통개선엔 시간을 요한다. 사회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바꾸어가야 한다 —

생산기술이 개발되고 수요가 증가하여 대량생산이 가능 하게 될때쯤에 가서 등장하는 문제가 유통이다. 한국양계산업의 경우 1970년대초가 이에 해당 하는 시기였다. 이때가 되면 생산과 소비를 연결 하는 유통 파이프가 병목(bottleneck)처럼 되어 계산물의 흐름이 여의치 않거나 유통부문 종사자, 시설, 자금, 기능등이 소량유통 당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 계산물은 소비자가 원하는바 그대로가 아니며 유통비용과 마아진은 서비스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그 결과로 공급과 수요관계에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가격은 놀랄만큼 등락 하게 되므로 생산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유통문제라는 것을 절감 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유통개선은 생산부문개선 보다도 어렵고 더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생산기술이나 규모는 농장안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즉각 바꿀 수 있는 자의적인 것인데 반하여, 유통은 개별 경영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타의적으로 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통은 최종 목적대상이 소비자인 고로 그 많은 소비자의 기호에迎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유통개선은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 계란인 경우 앞으로는 선별 위생처리, 포장, 가격표시 된채로 저온 진열대에서 소매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닭고기인 경우도 위생적

도계는 물론 적당히 분할되어 냉장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 또는 1 개월 이후부터 실시 하자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통개선 이란 소비자의 식관습, 위생정도, 일반상품의 유통상황, 기존 유통경로, 고용상태, 생산 및 가공수준, 유통비용 및 마아진 행태등 종합적 기존 요인의 대체 또는 불필요한 요인의 배제에 의하여 가능 하게 되는 것이므로, 예를들어 생계거래 방식이 비위생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계육 거래를 강요 한다 해서 생계유통이 도계 유통으로 바뀌지 않는다. 기존유통형태인 생계를 도계로 변화 시키는 데는 위생적 조치 이외에도 소비자에 대한 도계육인식, 저온시설을 갖춘 소매상 육성, 현대적 도계시설, 생계상에 대한 취업배려등 최소한의 기본대책 강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통이 개선 됨에 따르는 제비용은 소비자가 가격인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과연 소비자의 소득과 기회비용이 그만큼 높을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된다.

유통개선은 사회 경제적 변수의 변동 수준과 균형을 이룰때 달성된다. 유통지향적생산 소비 지향적 유통 및 생산체제를 추면서 사회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생산자 중심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장기적개선목표를 세워 연차적이며 종합적(marketng mix)인 방안에 따라 수행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 계산물은 비싸지 않은 대중성 단백질 식품이다. 생산자는 긍지를 갖고 소비촉진에 앞장서야 한다 —

계산물 생산자는 자기가 생산한 상품판매에 너무 무관심 하다. 계산물을 누가, 왜, 얼마를 먹으며, 안먹거나 덜먹으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알아 보지도 않는다. 소

비자가 안먹는 계산물을 무엇하러 생산 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다. 양계업이 기업인 한은 있을수 없는 일들임에 틀림 없다.

계산물은 양질의 식품임에 비하여 가격은 비교적 싸편이다. 그러나 아직 한국인 식탁의 주식물은 아니다. 따라서 수요가 타식품보다는 비교적 탄력적이고로 소비촉진과 비례하여 그 소비는 증가 할 수 있다.

양계업의 존속은 계산물의 수요를 전제로 한다. 소비확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공동적이며 계속적이어야 한다.

생산자 개개인의 부분적 노력이 아닌 산업 전체의 공동노력으로 비로소 가능하게 되며 그 구체적 주요내용에는 새로운 용도 및 소비처개발, 조리교육, 유통개선, 기타 소비를 저해하는 장애제거등이 포함 된다. 다 아는 것 처럼 소비 촉진 활동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어떻게 자금을 마련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다음에 언급한다.

— 안정화대책엔 할일이 많다. 누가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

이제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양계산업을 안정시키려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 까지 관련 모든 부문이 정상화 해야 한다. 또 정상화 하는 방법을 안다는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추진 수행 하느냐 하는 것이다.

추진주체 : 양계산업의 주인은 생산자다.

산업과 함께 언제까지나 가장 밀도 있게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생산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산업의 장단기 종합발전과 안정화 대책추진의 주체가 되어 마땅하다.

한국 양계업의 생산자 단체는 대개 두 부류의 사육자를 대표 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소규모 사육자의 경제적 자위와 정책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적 규모의 생산자 자권조직인 협회 라는 형태다. 이중 어느하나 또는 연합조직이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단체로 안정화 추진의 주체구실을 하면 된다.

방안의집약 : 양계산업은 아직 종합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대로 닦지 못하고 있다. 그 구축을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시작 하려면 맨먼저 해야 할일이 그동안 분산 되어 있고 또 계속 개발 되고 있는 안정화 내지는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집약 하는 절차다. 그것은 몇 사람의 글이나 한두번의 세미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부문의 전문가로 하여금 면밀히 연구 검토케 하여 그 결과를 하나의 안으로 제출케 한다음, 다시 그 안을 중심으로 전국 중요 양계 생산 및 소비지역에서 광범 하게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으로 집약 되어야 한다.

그 방안에는 거시적 사회 경제 측면에서 양계업 발전의 당위성과 한계를 규정 하고, 양계산업 관련내부의 구체적 기능에 대한 微視的 현황분석과 개선방법을 제시 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며 그것이 양계산업 발전 계획의 청사진으로 활용 될 수 있어야 한다.

안정자금 : 장기적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하다. 돈 없이는 어떠한 계획도 실행할 수 없다. 특히 유능한 직원을 확보 하는 일도 자금문제와 직결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 하느냐 하는 점이다.

많은 외국의 예와 그 용도의 성격으로 보아 이 자금은 생산자가 부담 하는것이 가장 합당하다. 개별 노력으로는 비능률적인 고로, 산업공동으로 해결하려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회비형식의 소극적인것이 아니라, 어느 기준이상 생산자의 계산물 판매량에 비례 하여 판매시점에서 단위수량 당 일정액을 거출(check-off)하거나, 생산

규모에 따라 마리당 얼마씩 부과(levy) 함으로서 개별 생산자에게는 조그마한 부담(0.1~0.5%정도)이나 전국적으로는 커다란 자금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이며 장기적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식을 실시 하는데는 모든 해당생산자의 합법성 결의가 필요하며 일단 결정된 후에는 그 부과를 의무화 해야 한다.

한국의 현실은 위의 두가지 방법 어느것도 채택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제산물유통은 자유시장 체제라서 어떤 질서있는 경로(orderly channel)가 없으며 생산 역시 어떤 조정(adjustment or control)이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생산자 모두가 참여 하는 낮은 비율의 부과이면서 수금이 용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필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때 마다 양계사료와 연결시키는 방식을 오래전 부터 권하고 있다. 앞으로 유통과 생산질서가 정연해질때 까지 또 농가자체의 자가사료배합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는 어느 축종을 막론 하고 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 된다. 특히 양계의 경우는 금후로 공장배합사료에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더욱 안정마춤이라 할수 있다. 만약 양계사료 연간 2,000억원에 0.1% 부과한다면 2억원, 0.5%라면 10억원의 기금을 모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개별생산자는 생산비에, 사료제조업체는 판매가격에 포함 시키면 된다.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조성은 생산자의 자의적 결의와 의무적 부과, 그리고 사료업체의 거금협조가 필요하므로 그 구체적 시행방법은 금후의 발전목표와 현재의 여러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 결정 할 것이며, 단편적이며 일시적 이익에만 집착 하는 생산자, 관련업체의 비 협조에 대해서는 이해와 설득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수행(전담)기구 :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안정화 방안을 설정하고 그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면 그 다음엔 하고자 하는 업무를 전담할 수행기구가 필요하다. 안정화추진주체 또는 기존단체에 이 업무를 맡길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담기구를 신설할 수도 있다. 이 기구의 성격, 기능, 설치, 운영에 관심이 있는 분은 월간양계 금년 1월호 131-132페이지를 읽어 보기 바란다.

IV. 결 언

한국양계산업은 그동안 양적으로 팔목 할 만한 성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기업화 지향적 성장발전을 지속 할 것이다.

이와같이 성장하고 발전 하는 과정중에 생산부문은 대량생산체제로 개발 되어가고 있는데로, 그 이후의 상품화, 유통, 소비부문 개선은 이에 뒤따르지 않고 있어, 제산물 생산과 소비 연결이 원활치 못 하다. 이로써 수급불균형이 자주 일어나고 그럴때 마다 가격은 심하게 진동, 어떤때는 1개월 사이에 50%가까이 까지 오르 내린다. 따라서 생산자는 가격불안에 대한 적응과 자제력을 잃어 산업불안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양계업 불안은 산업이 성장해 감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로 부터 연유 한다. 생산을 제외 하고는 양적인 확대에 적절하게 대처 할 수 있는 기능과 제도가 아직 확립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무질서한 공급, 전근대적 상품화 및 유통, 열등재로 되어가는 제산물 소비등 개선 해야 할 문제는 많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그때 그때 풀리지 않고 그대로 쌓여만 가고 있다. 산업불안의 복합적 요인을 체계 있게 해결해 갈수

있는 추진주체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의 양계산업 불안해소에 어떤 단일 비법이 없다. 생산과잉일때 생산만 조정 할 수 있으면 불안이 해결 될 것 같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불안요인은 생산뿐 아니라 도계시설, 유통경로, 유통중사자 유통비용, 소비자기호등에도 개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 모든 부문이 균형 있게 기능을 수행 하지 않는한 불안해소는 기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문제는 개별 생산자가 단독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 전체가 공동노력 해야 비로소 개선 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다.

양계산업의 안정화 목표는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에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 하느냐 하는 추진방법이 대두된다. 생산자는 산업과 더불어 가장 밀도있는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안정발전의 추진주체가

되어 마땅할 것이다. 장단기 안정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에 따라 추진 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자금도 생산자 부담으로 하되 한국적 현실로는 양계사료에 일정액을 부과 하여 조달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것 같다.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고, 자금을 모아 안정화를 추진 하는데는 관련 생산자의 결의와 의무적 참여를 필수 요건으로 한다.

한국 양계산업은 앞으로 성장발전 할수있는 좋은 조건하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무질서한 산업체제가 그대로 존속 하는 한 산업 각 부문간의 불균형은 심화 될것이며 산업불안은 더욱 고질화 할 것이다. 양계산업안정대책은 생산자가 주도하는 가운데, 정부를 비롯한 기타 보조기관의 협조를 얻어 계열적 통합경영체제를구축, 본질적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적극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믿는다.

동호가축약품상사

- 난치성 질병 상담
- 칠면조 사양 · 질병 상담
- 가축약품 종합 판매

수의사 : 이 동 춘
최 석 원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10-184

☎ 478-0865

